

제 36회 정기포럼

---

## 지역문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 일시 : 2003년 8월 1일 (금) 16:00 ~ 18:30
- 장소 : 안동시청소년수련관 정서함양장 1층
- 주최 : 한국자원봉사포럼·안동시자원봉사센터
- 후원 : 행정자치부·삼성사회봉사단·안동시

##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원봉사포럼(Korea Volunteers'Forum)은 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전략과 사회적 이슈들을 자원봉사학자 및 중견관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학회 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 임원구성

·회장 : 금창태 (세종대학교 교수)

·총무 : 이성철 (남서울대학교 교수)

·고문 :

최일섭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대 회장)

이윤구 (인제대학교 총장, 한국자원봉사포럼 2대 회장)

조해녕 (대구광역시 시장, 한국자원봉사포럼 3대 회장)

·운영위원 :

고진광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사무총장)

구혜영 (광진구자원봉사센터 소장)

김길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김성경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김영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배 (한국청소년개발원 전문위원)

김통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옥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

민경춘 (삼성미래전략연구소 상무)

박영숙 (호주대사관 문화공보 실장)

박재진 (기업은행 인력개발부 교수)

박현경 (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이강현 (볼런티어 21 사무총장)

이상진 (학교자원봉사연구회 회장)

이성록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이창호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최성균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장)

정갑진 (새마을중앙회연수원 부원장)

### □ 사무국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 11-3번지 풍전빌딩 201호

Tel : 02-756-1046 / Fax : 02-778-1047

E-mail : kovof@hanmail.net

H-page: www.volunteerforum.org

간 사 : 임은화

## 차 례

포럼일정 .....	1
시민자원봉사현장 .....	2
발 제 .....	4
서동석 (안동문화지킴이 총무)	
지정토론 1.....	10
이성록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지정토론 2 .....	16
한성심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지정토론 3.....	21
임재해 (국립안동대학교 국학부 교수)	
지정토론 4 .....	32
전은혜 (학사모 중앙공동 대표)	
포럼(회원)입회 신청서	

# 포럼 일정

▶ **개회식 (16 : 00 ~ 16 : 20)** (사회: 도광조 안동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시민자원봉사헌장 낭독
- 대회사 —— 금창태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 축 사 —— 김휘동 (안동시장)

▶ **주제발표 (16 : 20 ~ 16 : 50)**

- 주제 : 지역문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좌 장 : 최일섭 (서울대학교 교수)
- 발제자 : 서동석 (안동문화지킴이 총무)

▶ **지정토론 (16 : 50 ~ 17 : 35)**

- 토론자 : 이성록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한성심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임재해 (국립안동대학교 국학부 교수)  
전은혜 (학사모 중앙공동 대표)

▶ **전체토의 및 폐회 (17 : 35 ~ 18 : 30)**

※ 자원봉사활동 사진전시회 및 탈춤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시민자원봉사헌장

## 서 문


새 천년을 앞두고 인류는 세계평화와 번영, 풍요로운 삶을 더욱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계층간의 이기주의와 가족기능의 약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파생시켜 진정한 민주시민 공동체 사회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현대의 공적 사회제도는 개인의 존엄성을 충족시켜줄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자원봉사는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천년을 향해 나아갈 기본 방향이다. 인간에 대한 순수한 인도주의의 발로이며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등불이다. 그래서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고 믿는다. 자원봉사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가없이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공익적 활동을 의미한다.

## 기 본 정 신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민주시민공동체 형성과 성숙을 위한 필수적 활동임을 믿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시민의 권리와자 의무임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긴다.
- 우리 시민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아성장을 꾀하고 잠재력을 개발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개인의 성장과 사회발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 우리시민은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보완적 동반 관계에 있는 정부와 서로 협력한다.

## 행 동 강 령

- 우리시민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원봉사 대상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모든 특성에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원봉사 기관은 이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우리시민은 개인적 특성과 능력 그리고 희망에 상응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우리시민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 대상자 및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지킨다.
- 우리시민은 성공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봉사기관내의 다른 구성원과 협력하며 필요시 지역 및 국제적 연대를 통해 봉사활동의 목적을 달성한다.



발제

지역문화 자원봉사활동과  
안동문화지킴이

서 동 석 <안동문화지킴이 총무>

# 지역문화 자원봉사활동과 안동문화지킴이

서 동 석

안동문화지킴이 총무

## 1.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 1) 각종 국제대회 및 대형행사의 진행을 도와주는 봉사자  
(올림픽·월드컵·유니버시아드 대회·국제탈춤 페스티벌 등)
- 2) 문화예술공간에서 활동하는 봉사자 (미술관·박물관·예술공연장 등)
- 3) 문화예술과 관련된 봉사활동 - 벽화그리기, 음악, 문학, 연극(인형극 등) 기타
- 4) 문화유적을 둘러싼 활동가들 - 문화유산해설사·관광통역원등

### 사례 1

◇ 대구문화자원봉사단

<자원봉사단 운영목적>

2002년 월드컵,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대구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시민들과 함께 대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선진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시민문화 의식 증진 프로그램인 「대구문화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대구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증진 및 문화 자원봉사 영역개발, 시민문화의식 증진을 주요목표로 한다.

### 사례 2

◇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자원봉사자 교육

월드컵 이후 국가이미지의 향상으로 더욱 더 많이 박물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국내 관람객들에게 관람편의를 제공하고 문화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문화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자 한다.

이 교육을 통해 통역도우미·문화자원봉사자들이 우리 관을 찾는 내·외국인 관람객들에게 전통민속문화를 소개하여 올바른 우리나라의 전통민속문화를 이해하고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제고케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여 문화촉매자(Cultural Catalyst)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문화자원봉사자"는 우리전통의 우수성을 전달하는 첨병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된 두 개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문화자원봉사의 활동의 의미는 지역문화의 제고와 타 지역 혹은 타 국가에 자기 지역, 자기 나라의 문화를 알리기 위함이 일차적 목적으로 명시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문화의식의 증진과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경제적인 측면으로까지 확대된다.

문화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하면 떠올리게 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아직은 생소하기만 한 문화자원봉사 활동은 그러나 자원봉사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모집을 하는 측면이 있어 진정한 자원봉사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몇몇의 경우에는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자원봉사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 모집된 자원봉사는 차후 행사가 종료되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진실된 자원봉사의 일환으로써의 문화자원봉사의 새로운 영역 개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 2. 지역문화는 변두리 문화인가?

지역문화란 무엇인가? 과거 중앙과 지방이라는 나뉠을 벗어나서 공간적 평등성과 민주주의 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문화다. 지역문화란 수평적인 공간개념이면서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을 토대로 하는 문화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간이 사는 어떤 공간을 평등한 개념으로 분할하고 그 분할된 공간의 역사성과 생명력을 인정하면서 민족문화와 상호연계의 유연한 개념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지역이고 그 지역의 문화가 바로 지역문화이다.

인간은 살면서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생존을 할 수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우리는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환경과 지역의 현실로부터 자기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와 세계국가 체제에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삶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문화는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 문화는 그 자체의 독자적 생명력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성장주의자들은 선진적인 문화와 후진적인 문화가 있다고 제멋대로 규정해 놓고 선진적인 문화가 후진적인 문화를 도와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어이없는 착각 속에서 문화의 독자적 생명력을 짓밟고 있다. 천민 자본주의 문화가 만연한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고급스럽고 세련되었으며 첨단적이어야 발전했다고 여기고 문화나 예술 역시 그래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그런 성장주의와 문화제국주의를 숭상하는 인간

들이 많이 산다. 문화의 독자적인 생명력을 인정하지 않고, 지역문화를 변두리로 생각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가진 인간들이 많다. 우리가 중심으로 착각하고 있는 서울도 지역의 하나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은 더 큰 지역인 민족과 국가의 한 부분이고 민족국가는 더 큰 전체인 세계국가의 한 부분이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문화는 모든 지역문화에 대해서 평등하다는 생명주의와 인간주의의 세계관을 가져야만 한다. 지역문화라는 개념에는 21세기의 세계국가 체제 속에서 무한정 강요되는 세계화의 압력에 저항하는 휴머니즘이 담겨있다. 따라서 지역문화는 지역인들의 삶에 받을 딛고 서 있으면서 삶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독자적인 생명체여야 한다.

예컨대 안동문화는 안동이라는 공간 속에서 펼쳐진 안동인들의 역사와 삶을 토대로 하고 현재의 삶을 반영하며 안동인들의 미래를 담고 있는 그런 역동적인 문화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 모든 지역은 자기 지역의 문화를 사랑하고 가꾸며 다른 지역의 문화와 다정하게 교류하는 다문화주의적 전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역의 문화는 지역의 생존을 보장하는 결정요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 3. 지역문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안동문화지킴이

안동지역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복지관련 자원봉사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세계화를 바람을 맞은 것은 안동도 마찬가지로 축제와 문화산업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 부각은 문화부문에서 자원봉사자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그러나 간과하지 못할 것은 이러한 봉사활동이 지자체의 주도로 시작되어 주관 부서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안동에서 벌어지는 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우 운영회원(자원봉사자)을 구성하고 있으나, 해마다 새로운 인원들이 대부분이며, 축제가 끝나고 나면 역할도 끝난다. 또한 문화유산해설사나 중요 관광지에 자원봉사안내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재교육은 미미한 상태이며, 약간의 경비를 지원받기도 한다. 이런 경향은 지역내에서 문화자원봉사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겠으나 먼저 지역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다. 서양과 달리 사회복지 자원봉사에 치중되어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해결하고, 그렇게도 떠들어 마지않았던 세계화. 문화시민양성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봉사활동에 대한 개념의 확대 등을 통한 지역문화 자원봉사의 인프라를 자발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한다.

이런 지역문화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 안동문화지킴이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 ◆ 안동문화지킴이 ◆

### 1) 연혁

안동문화지킴이는 1999년 6월 설립하여 6월 26일 첫 활동 시작하였으며, 2000년 5월 비영리 민간단체 제 79호로 등록(경상북도)하였다. 1999년 6월 ~ 현재까지 문화재 보호활동 및 안동 시민의 문화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 벌이고 있다.

### 2) 설립목적

- (1) 안동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문화재를 찾아가 직접 쓸고, 닦음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안동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문화 사랑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자 함.
- (2)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동 문화의 참 모습을 이해시키고, 이를 통한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며, 안동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건전한 시민의식을 심어주고자 함.

### 3) 조직체계 (회원 : 약 400여명)

- (1) 대표지킴이 : 임재해(안동대학교 국학부 교수)
- (2) 총무지킴이 : 서동석
- (3) 실무지킴이 : 강은영, 권대성, 권두현, 김수형, 김호태, 나윤미, 이해영, 조정현, 최윤환.
- (4) 도움지킴이 : 김종담, 남재주, 류길하, 안상학, 엄원식, 이영임, 이향미, 임종교, 조재경, 지은숙
- (5) 가족지킴이      (6) 시민지킴이      (7) 청소년지킴이
- (8) 구독지킴이      (9) 후원지킴이

### 4) 사업내용

#### (1) 정규사업

##### ① 문화재 답사 및 청소

매월 1회(매월 4째 주 토요일) 안동지방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찾아가 청소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함

##### ② 소식지 발간

▷ 소식지 『사람과 문화』 발간

▷ 월 1회 발행

▷ 부수 : 약 2000부

▷ 목적 : 소식지 발간을 통하여 안동문화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회원 상호간의 유대감 고취

##### ③ 여름캠프 개최

▷ 시기 : 매년 7월 월례 활동일(1박 2일)

▷ 장소 : 문화유적지 및 수련원

- ▷ 대상 : 안동문화지킴이 회원
- ▷ 목적 : 상업적 캠프를 벗어나 문화재를 이용하여 캠프를 개최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문화사랑의 마인드를 심어주고자 함

(2) 비정규사업

- ① 문화강연회 개최(2회)
- ② 안동문화사진전 개최(2회)
- ③ 슬라이드로 보는 문화 강좌 개최(2회)

◇ 1999년 활동지역

6월-안동 태사묘, 7월-임청각 군자정. 8월-고산서원. 9월-예안향교.  
10-월석빙고, 선성현객사.11월-소산 삼구정, 청원루.12월-천전 의성김씨종택

◇ 2000년 활동지역

1월-하회마을, 2월-봉정사, 3월-일직 소호헌, 4월-와룡두루종택,5월-남후 낙암정,  
6월-길안 용계은행나무, 무실류씨종택, 7월-와룡 오천군자리 문화재 단지 여름캠프  
8월-길안 만휴정, 9월-도산 고산정, 10월-풍산 마애리 마애석불, 11월-풍산 상리 체화정,  
12월-송천동 역동서원

◇ 2001년 활동지역

1월-풍천 병산서원 가는 길. 2월-풍산 체화정. 3월-서후 능동재사와 권태사 묘  
4월-녹전 오계서원. 5월-일직 조탑동 조탑. 6월-도산 애일당. 7월-영양 수하 여름캠프  
8월-풍산 서미동 암각서. 9월-태화동 관왕묘. 10월-도산 토계리 퇴계종택.  
11월-서후 가야리 함벽당. 12월-서후 춘파리 광풍정

◇ 2002년 활동지역

1월-도산서당. 2월-임하 금소마을과 대보름놀이. 3월-풍산 오미동. 4월-도산 성재  
5월-북후 석탑사. 6월-와룡 병산전투 현장과 차전놀이. 7월-예안 역동 우탁 묘소와 캠프  
8월-길안 용담사. 9월-녹전 마곡서당. 10월-서후 가창재사. 11월-송현 임천서원.  
12월-신안동 치암고택

◇ 2003년 활동지역

1월-도산 선성현 관아와 국학진흥원 문중유물 관람.2월-안동역 취수탑과 경상섬유 굴뚝  
3월-의성 산수유마을. 4월-북후 석류천과 화전놀이. 5월-풍천 겸암정사와 부용대  
6월-경안성서신학원. 7월-구담 시북정과 여름캠프. 8월-일직 서산서원과 미천  
9월-영호루와 탈춤배우기. 10월-봉황사와 단풍. 11월-예천 초간정과 대동운부군옥  
12월-송석재사와 지킴이 축제



지정토론1

## 지역문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이 성 록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 지역문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이 성 록

국립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한국자원봉사실천연구회 회장

먼저 지역사회 문화전통과 자원봉사를 접목하여 문화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안동 문화지킴이 모든 분들과 특히 총무로서 출선하고 있는 발제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안동문화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동, 안동문화, 안동사람의 파수꾼이 되고자 한다는 취지와 전문가 중심의 연구 활동에서 시민중심의 실천 활동이 지킴이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활동 현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토론자로서 곤혹스러웠던 점은 발제자가 제공한 원고가 활동사례를 주로 기술됨으로써 논의해야 할 이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활동이나 발제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정보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토론자가 또 하나의 발제를 하게 되는 자기모순을 지적하려는 것임을 양해 해 주길 바란다.

발제 자료를 살펴 볼 때, 발제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지역문화는 변두리 문화인가? 다른 하나는 기능적 측면에서 관광중심의 관 주도성 및 교육의 미흡함, 그리고 자원봉사 개념의 확대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나름대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1. 문화를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문화자원봉사의 활동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럴 때 문화는 문화유적이거나 예술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하고 싶다. 물론 문화유적과 예술은 매우 중요한 문화의 일부로서 당연히 문화에 포함지만, 그것만을 문화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문화는 지식·신앙·예술·법률·관습 및 사회성원으로 서의 인간에 의해 획득된 기타 모든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총체로서 인간의 삶의

방식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문화는 삶의 방식이요 인간적 능력, 역량과 관련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문화적 역량이라고 할 때, 문화라고 지칭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지적 능력, 감성적인 능력, 윤리적인 능력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지적인 능력은 인식하고, 학문과 교육을 수행하는 능력 등을 가리킨다. 이런 지적인 능력이 구비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이 문화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감성적인 능력은 좋은 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한편 윤리적 능력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별하고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삶의 지배원리와 관련된 상생과 공존의 능력이다. 따라서 윤리적 능력도 문화적 능력에 포함된다고 본다.

결국 문화운동은 인간의 역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문화운동은 도덕적인 분노에 극단적으로 집착한 나머지 문화적 전통을 싸움의 장에 동원하는 데에 급급했으며 문화의 생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나 삶의 에너지로서의 심미적 차원에 대한 접근은 도외시하였다. 즉 문화운동이 저항문화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대안문화로서의 역할과 성과는 극히 미미한 것이었다.

한편 문화운동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문화유적 보존활동은 현상유지, 관리활동 수준에 집중한 나머지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역사적 질문에 대한 접근을 소홀히 하였다. 즉 특별한 건축물을 비롯한 문화유적들은 대개 지배계층들의 유물들이며 따라서 단순한 문화유적 보존활동이 지배계층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오류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서원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일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선비들이 서원의 강당에 모여 학문을 절차탁마(切磋琢磨)하는 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사우에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다. 그러나 서원이 이처럼 순기능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즉 서원은 학문과 인격 도야의 전당이 아니라 당쟁의 소굴이 되었고, 선현을 존송하는 제사의 일도 가문과 학파의 성세를 자랑하는 짓거리로 지나지 않게 되었다. 또한 향약은 향촌의 환난상휼을 도모하는 곳이 아니라 민폐의 본산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에 단지 서원을 새롭게 꾸민다거나 복원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원이 단순한 제사 장소이거나 생각 없는 관광객들의 구경거리 건축물로만 남아 있는 것도 기꺼운 일은 아니다. 역사의 교훈이 없는 유적물이란 단지 골동품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보존운동에만 집중 할 경우 지배계층의 과오를 미화하거나 민중의 역사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 이유로 지금까지의 문화운동의 의미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70년대 이후의 문화운동이 문화의 영역을 현실을 초월한 정신의 영역으로 한정시켰던 부르주아적 사회의 문화개념에 대한 분명한 거부의 표현이었다는 점 그리고 민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사회일반의 관심을 고조시킨 점등은 분명한 성과였다고 본다.

동시에 지역사회 문화유적 보존운동에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여 삶의 방식에 대한 재해석과 전환을 이루었으며, 단절된 지역사회 문화를 회복하고, 새로운 지역사회 문화를 생성하는 성과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문제 제기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의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함이다.

한편 발제가 제기한 지역문화의 자기정체성에 관한 문제제기는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다. 1990년대 들어서 시행된 지방자치는 여러 면, 특히 문화에서 아주 새로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 지역의 문화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생겼다. 지방자치 시대에 삶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나 권력 같은 중앙의 콘텍스트(context)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토대, 즉 지역적인 제반 요인들이기 때문이다. 지자체란 지역의 시민이 지역의 모든 문제에 결정권을 행사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들이 모여 민족과 국가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원리에서 움직인다. 중앙집권 하에서의 문화정책과 지자체 하에서의 문화정책은 그래서 전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달라야 한다.

동시에 지역문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자칫 지역 우월주의나 지역 패권주의 현상으로 진행된다면 이 또한 잘못이다. 열등의식과 소외의 심리가 맹목적 지역주의로 드러나는 나르시즘(narcism)적 현상은 병리적 착란일 뿐이다.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지식인들조차 맹목적 자기제일주의에 빠진 경우를 많이 본다. 나르시시즘의 환각(幻覺)일 뿐인 이 맹목적 자기제일주의는 문화발전의 암적인 요소다. 이러한 문화의 쇠국주의, 또는 배타주의를 경계하면서 냉정하게 지역문화를 점검하는 일은 현 단계 문화론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일 것이다.

## 2. 자원봉사를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자원봉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자원봉사에 대한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여 오히려 그 본질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시대에 따라 공적 영역 혹은 사적 영역에서 기능적으로 개념화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실존적 존재양식과 공동체적 삶의 방식과 관련된 행동원리로서 그 특성을 갖는다.

한편 다니엘 벨은 문화를 “실존의 의식에서 모든 인간 집단이 직면하기 마련인 핵심 문제, 즉 죽음, 비극의 의미, 의무의 본질, 사랑의 성격 등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문제에 인간이 지각을 가지고 대응하는 양식”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벨이 볼 때 문화의 테마는 역사의식 안에서 모든 인간이 매번 직면하는 ‘실존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화영역에서의 중추원리는 자아고양 혹은 실현이다. 각 개인이 자아를 만족시키거나 그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이, 사회집단들의 양식이나 문화의 표현양식에서의 새로움과 실험의 추구를 정당화 해주는 규범인

것이다.

즉 자원봉사는 근본적으로 공동체 정신의 발로이지만 그 발현의 배경에는 공동체의 위기가 있으며 이를 지각하고 대응하는 실존적 결단이 존재한다. 이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지향성으로서 삶의 질을 극대화하려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원봉사는 자아실현을 위한 문화능력으로서 간주된다.

여기서 앞의 논의를 토대로 정리하자면, 문화자원봉사활동은 첫째, 인간의 행복실현이라는 궁극적 가치와, 둘째, 문화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역사의식과 삶의 방식을 재구성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가 당면한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구하는 근사적 가치, 그리고 문화유적을 회복·유지·전승하고 문화예술 영역에의 참여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문화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도구적 가치를 갖는다 하겠다.

여기서 발제자가 제기한 문제점으로서 문화산업으로서 관광을 강조한 나머지 관주도형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지적인대로 분명 자원봉사운동의 왜곡을 가져오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안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전국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적 과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너무나 상투적인 해법이지만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관이 가지고 있는 교환자원과 민이 가지고 있는 교환자원의 상호보완성을 입증하여 민관파트너십의 주도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3. 문화자원봉사 활동의 전망

인간은 문화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며 환경을 창조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한다. 문화적 삶은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고 스스로 그것에 참여함으로써 현실의 삶을 반추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바와 같이 인간의 삶의 질에 집중한 자원봉사의 개념과 문화적 삶은 거의 동질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발제자가 마지막으로 제기한 자원봉사 개념의 확대는 자원봉사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즉 발제자가 지적한 자원봉사의 사회복지 집중성은 하나의 과정일 뿐, 자원봉사 개념의 제약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시민들의 특정 자원봉사활동 영역의 참여선택은 제한된 정보와 합리적 선택의 문제이므로 좁은 의미의 문화영역에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환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과제가 현실적으로 난해할 뿐이라고 본다.

그러나 향후 문화영역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욕구는 보다 증가될 것이며 특히 복지, 환경, 문화 이 세 영역이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복지, 환경, 문화 이 세 영역은 삶의 질 향상에 접근하는 실천적 공통점과 나아가 이념적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이 세 요소를 모두 반영한 복합적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보다 증가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공동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 자원봉사활동의 전망을 위하여 우선 다른 나라의 사례로서 프랑스의 샹티에(Chantier)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샹티에는 “자원봉사 작업장”을 의미하며 처음에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문화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점차 성인까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활동은 프랑스 전역에 널려져 있는 고대문화유적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샹티에의 과업은 문화작업에만 활동을 국한하지 않는다. 예컨대 인근마을의 시골길을 포장해 주거나 전통가옥을 보수하고 특히 녹지대 보존, 환경정화 작업 등도 함께 수행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첫째, 문화자원봉사활동이 단지 문화유적 보존하기 위한 노력만이 아니라 환경보전활동을 동시에 수행하여 환경문화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문화운동이란 환경운동과 문화운동의 결합으로서 환경을 주제로 한 문화운동이며, 문화를 매개로 환경운동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문화보전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만의 참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문화유적 소재지 주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자본과 문화권력의 소외와 불평등성을 막기 위해 문화재와 유적 보전은 뜻있는 사람들의 참여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인류는 경제적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 시장에 대한 환상을 서서히 버리고 공동체적 삶,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지향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은 인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와 환경과 복지 이 세 영역이 중심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천에 있어서는 복합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본다. 이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이념적 가치와 실천적 기술의 정립이라는 과제를 위해 영역별 정보, 기술 교류가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2

地域文化 自願奉仕活動의  
活性化에 대한 小考

한 성 심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地域文化 自願奉仕活動의 活性化에 대한 小考

한 성 심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1. 지역문화의 정의

지역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동일시하는 곳으로 구성요인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Hillery와 Willis)

첫째,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둘째, 장소 또는 지리적 영역이 있고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넷째, 공동의 애착심 또는 심리적 유대감이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와 서로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심리적 유대감을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하면서 지리적으로 경계가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지역사회라는 개념이 갖는 중요성 중의 하나는 개인과 사회를 실제적으로 서로 연결시켜 주는 접착의 장이요 장치다(정지웅, 임상봉,1999)

전통적으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세 요소로 지역성, 지역의 사회, 지역성에 기초한 집단행동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문화라는 어휘는 원래 '경작'을 의미하는 라틴어 cultura에서 유래했듯이 '지식, 신앙, 예술, 법률, 관습 및 사회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획득된 기타 모든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총체'라고 테일러가 정의하였으나 예술적 활동에 관련된 모든 인간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문화란 "인간의 예술적 활동의 결과물 뿐만 아니라 지식의 습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욕구, 삶의 방식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역(사회)과 문화의 합성어인 지역문화란 특정한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문화로 요약할 수 있겠다.

## 2. 지역문화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사회가 복잡해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국가(지자체) 차원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국가의 복지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민간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공동의 또는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소외되고 있어서 그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바로 여기에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컨대 문화적 삶은 문화예술활동을 접하고 스스로 그것에 참여함으로써 현실의 삶을 반추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며 문화자원봉사활동은 본인은 물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촉매자 역할에 충분하다.

## 3. 지역문화활동 프로그램 및 봉사자의 유의사항

### 1) 문화재 보존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마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일이라고 무심히 넘기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위해 시민들의 힘이 함께 모아진다면 바람직할 것이며, 특히 이러한 활동이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국가(지자체) 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문화재보존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그동안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기존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소극적인 목표이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이 있어야 문화재보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애호의식의 증진이란 보다 적극적인 목표까지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문화재 보존을 목표로 한 자원봉사는 ①무형문화재 계승, ②유형문화재 문화시설 보호, ③문화재 발굴의 세 가지 체계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는 무형문화재 공연(전시) 및 강습, 유형문화재 보호·감시·계도, 유형문화재 안전점검, 문화재 지역 환경정화, 문화재보호 캠페인, 박물관 자료정리, 향토문화 조사·연구, 문화재 발굴 보조 등이 가능할 수 있다.

## 2) 문화생활 향상

우리의 문화생활은 갖가지 유해환경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그것은 정보의 부족에서도 오는 것이기도 하고, 공동의 대응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이 문화생활의 향상에 목표를 두어 행해진다면 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공유하고, 유해환경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의 목표는 ①계몽 및 편익제공, ②생활불편 및 유해환경 개선의 두 가지 체계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는 한글교실 운영, 입원환자를 위한 노래반 운영,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 정보지 발간, 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여론조사, 청소년 유해시설 감시, 텔레비전 모니터링, 만화 모니터링, 컴퓨터통신 모니터링 등이 가능할 수 있다.

## 3) 문화복지서비스

보다 나은 삶, 문화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 때문에 문화복지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일층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도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것을 기본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문화복지서비스에는 문화시설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단순히 노력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임할 것이 아니라 그 같은 활동을 통해서 봉사자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자원봉사의 목표는 그 대상에 따라 ①대인서비스, ②문화시설 이용서비스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원봉사프로그램으로는 지역사회 음악회 공연, 노인복지시설 위문공연, 문화행사 진행보조, 공연이나 문화재관련 영상자료 제작, 지역도서관 도서정리, 지역문화시설 안내, 문화시설 탁아보조 등이 가능할 수 있다.

참고로 성남시의 경우 윈드오케스트라, 민트오케스트라, 분당어머니합창단, 클래식기타아모임체인 로스아미고스, 좋은아버지들의 중창단, 이순림무용단, 풀이무용단, 향토소리회, 판소리보존회, 한국국제경로봉사단, 반딧불이학교, 맹산생태보존회 등 문화활동을 하고있는 단체가 많다. 이들이 자기계발의 범위를 넘어 주변을 위해 봉사활동을 할 때 자원봉사활동이 되는 것이다.

지역사회봉사활동의 모범적인 모델케이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성남시 여수동 여술마을의 연꽃축제는 도심 속의 농촌마을이 세계적인 문화마을로 발돋움하는 좋은 사례로 주민들과 연꽃전문가가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우리꽃, 우리농작물, 텃밭, 야생화로 볼거리를, 마을 부녀회에서는 연을 테마로 한 먹거리를, 그리고 동문화센터에서 학습한 문예품 전시와 예술제가 한데 어우러져 그야말로 종합 지역문화 축제가 연 삼일간 벌어졌다.

이렇게 지역개발성 문화축제가 열리게까지는 숨은 지도자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문화자원봉사자의 유의사항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봉사정신을 보다 나은 문화·예술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한 단계 높은 삶의 질 향상이 모두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서 항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동시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자 스스로 자기개발을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아울러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가시간을 가질 수 없고 문화·예술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문화·예술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문화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가 보다 많아야 한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이와 같은 문화·예술 공연(전시)활동은 그들을 직접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이때도 그 문화·예술의 수용자가 그것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봉사활동이 몸공 등의 노력을 기울여 보람을 찾았다면 문화봉사활동은 봉사자나 수혜자가 즐기면서 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 4. 문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한 소고

발제자의 □문화자원봉사 활동의 일차적 목적□에 대한 소견...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최근에는 동화책 읽어주는 학부모, 감성을 살리는 시 감상 지도, 학부모 독서도우미의 역할, 종이와 손의 만남, 책과 함께하는 그리기 마당, 내 목소리 어때요, 교사 록 밴드 등 학교 장르에서 봉사 마인드가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을 봉사일꾼으로 끌어 들인다면 지역문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지정 토론3

안동문화지킴이 활동과  
문화봉사운동의 현실

임 재 해 <국립안동대학교 국학부 교수>

# 안동문화지킴이 활동과 문화봉사운동의 현실

임재해

국립안동대학교 국학부 교수

## 1. 자원봉사활동과 문화봉사운동

자원봉사활동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큰 행사를 치를 때 일시적인 인력 수요에 스스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다. 일시적인 수요인 까닭에 행사가 끝나는 동시에 봉사활동도 끝난다. 일시적으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시민들이 자원해서 참여할 수 있으되, 행사내용에 따라 다양한 역량을 갖춘 시민들의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는 그때마다 유동적인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며 자원봉사자는 행사에 도움을 주며 사회봉사의 보람을 찾는 활동이다. 국제행사나 지역축제에 도우미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그 보기이다.

둘은 특별한 공간에서 지속적인 인력 수요에 스스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다. 장애인 시설이나 문화공간 등에서 상근자를 도우는 일로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특별한 의식이나 취미, 또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같은 일에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다. 고정적 인력이 같은 공간에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효과적이되, 여러 사람들이 번갈아 참여함으로써 시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내적 욕구도 더불어 충족시키는 봉사활동이다. 장애인 시설이나 문화시설, 관광지 등지에서 하는 도우미 활동이 좋은 보기이다.

셋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열린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인 봉사활동이다. 스스로 사회적 공익을 인식하고 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지속적인 운동을 표방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익적인 활동이라도 앞의 경우는 봉사활동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는 봉사운동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인력수요가 필요해서 지원자

를 모집하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봉사활동을 정해진 내용대로 감당하는 것이라면, 봉사운동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요구에 의한 지원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공동선과 공익을 위해 봉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봉사의 방법과 내용, 조직 등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널리 확산되고 오래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하는 주체적 활동이다.

그러므로 봉사대상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 또는 행사 등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서 봉사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운동성이 한층 강한 까닭이다.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고 공익을 추구하거나 공동선을 지향하는 대부분의 시민운동은 사실상 봉사운동이라 할 수 있다. 자연보호운동이나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연보호나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운동은 우리 사회 전체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봉사활동이지만, 구체적인 수혜 집단이 뚜렷하게 대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봉사활동으로 여기지 않기 일쑤이다. 안동문화지킴이에서 하는 문화운동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겐 직접적인 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자원봉사활동이라 하기 어렵지만, 문화재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의식을 높여주는 일을 보수 없이 도와준다는 점에서 봉사운동이라 할 수 있다.

안동문화지킴이는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보존활동과 답사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문화봉사운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회비를 내고 문화재 보존활동을 벌이는 일반 지킴이와 달리, 실무지킴이들은 더 많은 회비를 내고 시간을 내어서 회의와 기획 및 준비를 하며, 사전 답사를 하여 『사람과 문화』에 원고를 직접 쓰고 편집활동을 하는 한편, 현장활동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노력봉사를 한다는 점에서 한층 적극적인 문화봉사운동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이 문화지킴이 운동을 구상하고 조직하여 실천활동을 이끌어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광지에서 문화재를 설명하거나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활동과 달리, 창의적인 문화봉사운동으로 분별되어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특정 문화공간의 수요에 의한 닫힌 구조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사회 일반의 문화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열린 구조의 문화운동이기 때문이다.

## 2. 문화지킴이 활동의 현실과 보람

안동문화지킴이는 그야말로 지역사회의 문화를 지키는 운동을 주체적으로 펼치는 모임이다. 안동문화지킴이는 안동문화를 지킨다는 뜻과 안동사람들이 문화를 지킨다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앞의 뜻으로 보면 다른 고장사람들도 안동문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안동문화를 지키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뒤의 뜻으로 보면 안동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안동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고장의 문화를 지키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뜻을 아우르고 있어서 다른 고장 사람들의 참여도 기대하고 다른 고장의 문화지킴이 운동에도 관심을 기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안동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안동지역 문화를 지키는 일에 충실하려고 한다. 그러나 봉사운동답게 전국적인 참여와 확산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화지킴이 활동의 출발은 지역의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문화유적이 있는 현장에 가서 문화재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활동과 문화재 현장공부 등을 함께 하는데, 점차 무형문화재로 영역을 확장하고 때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근현대의 지역문화 자료도 대상으로 끌어들여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지킴이 구성은 실무지킴이, 가족지킴이, 시민지킴이, 청소년지킴이, 후원지킴이 등인데, 지속 가능한 운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가족지킴이의 활동에 무게 중심을 두며 최근에는 ‘한 가족 한 문화재 지키기’ 활동을 새로 전개하고 있다. 초기에 3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했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 불과 4년만에 약 800여 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

나는 지역문화운동으로서 ‘안동문화연구회’와 ‘문화모임 안동’, ‘안동문화지킴이’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현재 가장 바람직한 활동으로 판단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안동문화지킴이이다. 왜냐하면 문화지킴이 활동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문화봉사활동인 까닭이다. 안동문화연구회는 대학원 교육 이상의 고학력자들을 중심으로 현지답사와 연구활동을 벌이는 문화전문 인력들의 자족적 연구활동이다. 따라서 예사 시민들의 참여폭이 넓지 않다.

‘문화모임 안동’은 『안동』이라는 잡지를 격월간으로 펴내어서 안동시민들에게 배포하는 활동을 주로 한다.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운영위원과 후원회원 및 구독회원들인데, 재정을 지원하는 분들과 글쓰기를 하는 분들의 참여가 중심을 이룬다.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갖추었거나 글쓰기를 할 만한 지적 역량을 갖춘 분들이 주도하는 문화봉사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지역문화 관련 잡지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까닭에 일부 제한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데다가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함께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문화 관련 인쇄매체를 갖춘다는 것은 선진적인 활동이어서 가까운 지역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안동문화지킴이 활동은 시민들과 문화현장에서 직접 만날 뿐 아니라 문화재 보존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고 현장에서 공부한다는 점에서, 안동문화연구회나 문화모임 안동에 비해 한층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운동이자, 아래로부터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봉사활동이다. 연구나 매체 등에 의한 관념적인 활동이 아니라 문화재 현장까지 찾아가서 직접 청소활동을 하고 문화재를 보면서 생생하게 설명을 듣는 데다가, 매달 발행되어 현장에서 배포되는 『사람과

문화』의 취재기사까지 읽은 다음, 퀴즈 활동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공부한 것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실천적 활동을 수행한다. 유치원 어린이에서 주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들과 열린 관계 속에서 문화재 보존활동도 하고 문화공부도 할 수 있어서 보람이 더 크다.

문화지킴이 활동은 문화재 지키는 일을 위해 일방적으로 봉사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흥미를 가진 문화공부를 실감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두 가지 효과를 가진다. 두 활동과 효과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이 대조적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청소 활동에는 어린이들이 적극적인가 하면, 문화공부 활동에는 어머니들이 더 적극적이다. 예상했던 상황과 어긋난 반응이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문화공부 못지 않게 자녀들이 문화공부를 제대로 하기를 기대하는 까닭에 적극적으로 지킴이 활동에 자녀들을 데리고 참여하며 문화재 설명을 잘 듣고 퀴즈문제를 잘 맞히기를 바라는가 하면, 아이들은 문화재 현장에서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아서 제 손으로 문화재 가꾸기 활동을 했다는 봉사체험에 더 보람을 느낀다. 집과 학교 사이를 오가면서 제약된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야외 나들이를 곁들여 문화재 지키는 활동을 직접 몸으로 실천한다는 사실이 특별한 성취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현장 사정에 따라 청소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왜 오늘은 청소를 하지 않는가’ 하고 섭섭하게 여길 정도이다.

문화공부활동보다 문화봉사활동에 어린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높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자, 문화지킴이 활동의 묘미가 있다. 자연보호운동이나 청결활동을 위해 길거리나 강가의 쓰레기를 줍고 아침청소를 하는 일은 즐거하지 않는 데 비해, 문화재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기름걸레로 걸레질을 하며 주위에 무성하게 자란 풀을 뽑는 일은 기꺼이 참여한다. 어머니나 아버지와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한 까닭이기도 하지만, 문화재의 소중함을 학교에서 배워 알고 있는 데다가 구체적인 문화재를 대상으로 청소를 하고 난 뒤에 말끔하게 달라진 문화재의 새 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데서 얻는 보람이 적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음에 있고 뜻이 굳어도 개별적으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활동이라는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다.

### 3. 문화지킴이 활동의 한계와 새로운 지향

공적인 문화를 스스로 지킨다는 것이 문화지킴이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봉사운동 방향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문화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문화지킴이 현장활동을 벌인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지킴이 활동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문화봉사운동이라 할 수 없다. 우선 문화재에 치우쳐 있는 것이 문제이다. 대부분의 문화재는 서원과 종택, 정자, 재실, 향교 등 역사적인 문화유적이며 이름을 드날린 지배계층의 문화유산들이다. 지금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 죽은 문화재이거나 당대의 기득권층이 누리던 특수

건축물들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에서, 참으로 문화를 살아있게 지키는가 또는 민중문화의 건강한 전통은 돌아보지 않아도 좋은가 하는 비판적 문제제기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현장활동 문화재 선정에 한층 융통성을 가지고 숙고해야 할 뿐 아니라, 문화지킴이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우선 문화를 지킨다는 것에 대한 상식 수준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한다. ‘문화’지킴이 하면 으레 그 문화적 대상으로서 지정문화재를 생각하기 일쑤이다. 문화재를 넘어서야 살아 생동하는 문화를 대상으로 끌어안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문화‘지킴이’에서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있는 것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문화유산으로 현존하는 것에 한정하여 보존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러므로 문화재 중심의 ‘문화’ 관념과 현상유지 수준의 ‘지킴이’ 인식이 결합된 까닭에 문화재 중심의 관리활동 및 보존운동에 만족하기 일쑤이다.

문화재 중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문화는 일상생활 수준의 살림살이 전반이 문화일 뿐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모두 문화이다. 생활양식 수준의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봉사운동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지역사회의 문화예술활동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봉사운동은 충분히 가능하다. 유형문화재여서 자연스레 망실되거나 누가 애써 훼손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고정적인 문화재이자 역사적인 문화유산 지키기 활동에서 나아가 지금 우리 삶과 함께 숨쉬며 시민사회 공간에서 현실적으로 살아움직이는 문화예술 활동에 동참하는 활동이 새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럴테면 그림전이나 서예전, 공예전 등 각종 전시회가 열리면 문화지킴이 회원들이 지정한 시간에 함께 참여해서 작가의 안내와 설명을 듣고 따로 모여 작품에 대한 토론회를 벌이는가 하면, 음악회나 연주회, 춤발표회, 연극공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연예술에 대한 교양을 높이고 뒤풀이 행사로 모여서 저마다 소감을 털어놓고 감상의 성과를 공유하는 모임을 가진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공개강연회 참여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의 문화행사와 공연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토론을 하여 스스로 문화활동을 일상화하는 동시에 문화인들의 행사와 작가들의 발표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안동과 같은 소규모 지역사회에서는 문화행사와 예술활동에 여러 모로 제약을 받는다. 왜냐하면 문화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작품을 이해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히 지역을 떠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인 발표활동은 대도시로 나가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어느 정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람들은 아예 지역사회를 떠나서 대도시로 진출하게 된다. 그러면 지역사회 문화는 양적으로 메마르게 되고 질적 수준도 점점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그러

므로 문화전문가나 예술가들만이 지역문화의 양적 풍요와 질적 발전을 전적으로 떠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를 수용하고 향유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적극적 수용과 참여는 물론 비판적 평론까지 담당해야 지역문화의 수준이 오른다.

모처럼 연 전시회나 예술공연에 일정한 문화지식을 갖춘 문화지킴이 회원들이 단체 관람을 하고 또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 설명을 듣는 것은 물론 전시작품이나 공연내용을 두고 작가와 대화를 나누는 모임을 가지게 되면, 썰렁하던 전시장이나 공연장이 아연 활기를 띠게 된다. 물론 전시회장이나 공연장의 도우미 구실까지 하면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봉사활동이 될 것이다. 문화지킴이 회원들의 이러한 참여는 시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실패할 뻔한 공연이나 좌절감을 안겨주는 전시회 주체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동시에, 다수 시민들로 하여금 전시회와 공연회 관람을 일상화시키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단순한 관람에 그치지 않고 작가와의 대화로 작품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상의 공유로 작품을 보는 눈을 높이게 됨으로써 문화적 수준을 향상하게 만든다. 작가와 시민들 사이의 소통과 참여의 선순환이야말로 살아 있는 지역문화를 실질적으로 가꾸어가는 활동이다.

문화의 대상도 이렇게 문화재 중심에서 현실문화 활동으로 넓혀가야 하지만, 지키는 활동도 이미 있는 문화현상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된다. 문화지킴이의 적극적인 활동은 사라져 버린 지역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 만들어가야 할 지역문화에 대한 구상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문화지킴이는 3 가지 차원의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나는 잃어버린 지역문화를 찾는 일이고, 둘은 현존하는 지역문화를 온전하게 지키는 일이며, 셋은 새로운 지역문화를 풍성하게 가꾸어 가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있는 문화를 지키는 데 만족하지 말고 잊혀진 문화를 찾아나서며 새롭게 필요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일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창조적인 문화 지키기는 문화보존에서 나아가 문화발굴과 함께 문화생산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어느 지역사회이든 현재 전승이 중단된 문화가 많다. 아예 흔적조차 없는 문화도 많지만 어른들의 추억 속에 남아 있고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문화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어릴 적 문화의 체험과 선조들로부터 전해들은 문화 정보조차 함께 사라지게 된다. 어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이 체험한 문화를 되살리고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문화정보들을 조사해서 보고서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긴요한 문화는 찾아내서 보고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복원활동까지 펼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전승되는 지역문화를 지키는 일이다.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현재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하는 현장활동을 현실 문화활동으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장에서 전승되는

민속문화는 거듭해서 전승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게 마련이다. 구비전승되는 자료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거듭 구연하고, 행위전승 자료는 끊임없이 거듭 연행하여 후대사람에게 전수시켜 주어야 한다. 고려 중기로 추정되는 하회탈은 잘 보관만 하면 앞으로도 계속 전승될 수 있지만, 하회탈놀이는 계속해서 거듭 연행하여 다음 세대들도 연행할 수 있도록 탈놀이를 전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지역의 전통문화들을 거듭 연행하고 구연할 수 있도록 전승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문화지킴이 활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셋은 지역에서 전승되는 문화를 찾고 지키는 데 이어서, 한층 적극적으로 가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지키는 일이 현상적 수용에 머문다면 가꾸는 일은 창조적으로 변용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이며 더 적극적으로는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는 일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고스란히 전수하는 데서 머문다면, 문화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기껏 현상유지에 머물 따름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오늘의 상황에 맞게 재창조하는 한편, 이러한 극적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시대의 새로운 탈놀이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활동들만 문화생산이 아니다. 문화지킴이 활동을 새롭게 시작해서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에 널리 정착시키는 자체가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이자, 문화가꾸기 활동의 실천적 행위이다. 안동문화지킴이가 기존의 활동에서 나아가 한 가족 한 문화재 지키기 운동을 새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동이 확산되면 안동문화는 한 단계 성숙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문화지킴이는 이처럼 잃어버린 문화 찾기, 있는 문화 지키기, 문화를 새롭게 가꾸기로 분별할 수 있는데, 회원들의 처지와 역량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맡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역문화를 찾아내는 일은 문화지킴이에 참여하는 문화전문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할 일이라면, 문화 지키기는 가족지킴이와 청소년지킴이들이 주체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문화 가꾸기는 문화지킴이 가운데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문화기획가들이 결합하여 창조적으로 만들어가야 제대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현재 안동문화지킴이의 인적 자원과 물적 기반으로서는 문화 찾기 활동도 어려우려니와, 적극적인 문화 가꾸기 활동은 사실상 실천하기 버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진보적인 문화예술단체와 손을 잡고 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 노력이 절실하다.

#### 4. 문화지킴이 활동에 참여하는 문화지식인의 태도

문화지킴이 활동에 참여하는 문화지식인의 마음가짐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시민 중심의 문화봉사운동에 문화지식인이 복치고 장구치듯 너무 설치하는 것도 문제이다. 시민들이 주체적

으로 나서도록 뒤에서 도와고 지나치게 나서지 않는 미덕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지킴이 활동을 보조하고 밀어주며 후원하는 구실과 더불어, 시민지킴이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소리나지 않게 맡아서 감당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야 한다. 문화지식인들은 그들이 다투어 활동할 무대가 따로 있다. 전문가들 중심의 협회나 동인집단과 각종 연구모임과 학회 등이 주 무대이다.

특히 대학교수들은 학회에서 자신의 연구역량과 전문지식을 마음껏 발휘하고 문화지킴이와 같은 봉사활동에서는 기획활동과 재정적 도우미 구실에 만족해야 한다. 조직과 활동이 적극적으로 잘 굴러가고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을 때일수록 없는 듯이 뒤로 물러나 있어야 자생력이 강화된다. 그러나 조직이 흔들리고 활동이 쇠퇴하는 조짐이 보이면 상황을 제대로 포착하고 즉각 전면에서 나서서 조직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슬러 가야 한다. 다시 동력이 불고 안정되면 이전처럼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시민활동을 주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문화지식인의 역설적인 참여 방식이다. 활동이 잘 굴러갈 때 얼굴을 전면에서 드러내서 생색을 내다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나 몰라라 하고 꿈무늬를 빼면 문화봉사운동이 지속되기 어려운 까닭이다.

문화지식인들일수록 문화봉사활동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대학교수와 같은 지식인들은 재벌들을 향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곧잘 말한다. 재벌들이 기업을 일으키고 재산을 축적한 것은 사회구조 속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재산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옳은 주장이자 설득력도 있다. 그럼 교수와 같은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가. 지식인들이 전문지식을 터득하고 대학 강단에 설 수 있게 된 것도 재벌들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조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교수들은 재벌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자신의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탈이다.

부의 사회환원처럼 지식의 사회환원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권력이나 명예도 예외일 수 없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권력을 사회를 위해 돌려주어야 한다. 그 권력도 사회로부터 나온 것이다. 권력자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그 효과는 대단하다. 지역의 재력가와 유지들이 쉽게 동참할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명예를 얻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베스트 셀러로 유명한 필자든, 연예활동으로 유명해진 연예인이든, 여행가로 이름난 사람이든 이들도 자신의 명예를 사회에 환원해야 마땅하다. 유명인들이 나서면 시민대중들이 함께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비해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대학교수들은 이들처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봉사활동이 하나의 의무이므로 이를 외면할 수 없다. 대학의 사명이 연구와 교육과 봉사라고 하는 인식은 이미 오랜 상

식이다. 연구와 교육, 봉사 활동의 주체는 당연히 교수들이다. 연구와 교육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제도적 틀 속에 있지만, 봉사활동은 자발적인 것이어서 사람에 따라 전혀 관심이 없는 이도 있다.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수들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에는 거의 나서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교수와 같은 지식인들은 일반 시민들에 비해 뜻만 있으면 한층 수월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이 정당성과 신뢰감을 주는 까닭이다. 그것은 마치 제복을 입은 신부나 수녀 또는 승려가 시위대에 한두 사람 참여하는 것이 예사 시민들 열 사람 참여하는 것 못지 않게 효과적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안동 지역사회에는 약 500명 가까운 교수들이 있다. 만일 이들 교수들이 저마다 자기 전공 분야에서 한 가지 정도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친다면 안동사회는 놀랄 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다른 지역사회라고 해서 다를 까닭이 없다. 따라서 교수의 업적 평가도 연구와 강의 영역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 영역에도 같은 비중으로 해야 한다. 연구와 강의 활동의 업적은 교수와 학생 등 대학 내부 조직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봉사활동의 업적은 지역사회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도록 해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교수들의 사회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와 다른 수준에서 엄격히 주목되어야 한다. 그것은 평가되고 점검되어야 할 만큼 지식인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각 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력에서부터 재능, 기술, 지식, 명예, 권력, 금력에 이르기까지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환원 운동이 널리 전개되어야 21세기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역사적 의식을 가다듬게 되면 다른 봉사활동과 달리 문화지킴이 활동은 특별히 재인식되어야 한다. 경제가 삶의 양적 풍요를 결정한다면 문화가 삶의 질적 수준을 보장한다는 각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문화지킴이 운동은 안동지역만의 활동으로 머물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운동으로 나아가야 마땅하다. 문화운동은 한때 전국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던 새마을 운동과 대립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군부정권에서 전개한 경제운동이자 잘 살기 운동이었다. 자연히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에서 민으로, 위에서 아래로,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교조적으로 추진되었다.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인 운동이지만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경제성장도 어느 정도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결같이 문화의 세기라 일컬고 민주정권이 들어선 새로운 시대상황이다. 따라서 20세기의 경제운동과 달리 새로운 차원의 문화운동을 펼쳐야 한다. 21세기의 문화운동은 지방에서 중앙으로, 민에서 관으로, 아래에서 위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실천적

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지킴이 운동은 지역에서 중앙으로 나아가고 아래에서 위로 치받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자치 운동이자, 아래를 튼실하게 다져서 위를 우뚝하게 만들어 세우는 민주적 문화시민 운동이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화를 찾아서 지키고 가꾸어 가는 문화분권 운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문화지킴이 활동이 시군 단위로 조직되고 횡적으로 확산되어 전국적인 연대를 이루게 되면 대단한 지역문화 혁신 운동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자치단체와 정부 차원의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이 활동을 이끌어가는 주체들의 경험적 성찰과 끊임없는 발상의 전환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자원봉사자로서 일정한 자기 훈련과 문화지식에 대한 기반확충 노력도 필요한 까닭에 이 운동을 이끌어가는 실무지킴이들의 연수활동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창의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문화지킴이 활동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 자원봉사활동이라 할 수 없다. 개인적인 보람을 충분히 느끼면서도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수준 높게 하는 문화적 보상을 직접적으로 받는 까닭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일부 실무지킴이들의 희생적인 봉사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적어도 실무지킴이들은 충분히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희생적인 자원봉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 더욱 치밀하고 효과적인 계획 수립과 다양한 현실문화 활동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개인 수준의 희생적인 봉사는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만 해결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그러므로 활동을 이끌어가는 주체들의 사명감과 자기 역량 축적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행정적 관심과 함께 문화봉사 단체의 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긴요한 과제이다.





## 지정토론4

### 지역문화 자원봉사활동과 안동문화지킴이에 대하여

전 은 혜 <학사모 중앙공동 대표>

# 지역문화 자원봉사활동과 안동문화지킴이에 대하여

전 은 혜

학사모 중앙공동 대표

우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신 안동문화지킴이와 활동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도 학부모로서, 혹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자원봉사자로서의 헌신성과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자원봉사 분야에 대한 재교육과 연계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문화지킴이의 경우, 지역적인 한계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자 발굴과 양성, 그리고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전문가 양성, 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어느 분야보다 활발한 활동은 물론 지역발전과 더불어 국위선양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발제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 자원봉사는 사회복지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이 선호하는 혹은, 학교에서 연계해주는 봉사장소가 사회복지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만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수준이나 수요처 발굴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데에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중심이된 다양한 수요처 발굴과 전문적인 교육 기관 양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동문화지킴이의 선례를 매우 귀중한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무엇보다 귀중한 지적은 지역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정립입니다. 발제자는 ‘지역문화는 생명주의와 인간주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바라보아야 하고, 지역의 생존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난히 우리나라는 행정은 물론, 문화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양상을 띠고 있

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경제발전 모형과도 깊은 연관이 있겠지만, 문화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미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고유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고 나름대로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에 문화적 가치가 등한시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성과를 이루어내기는 쉽지않을 것입니다.

다행히 지방자치제의 안정과 더불어 지역축제의 활성화, 지역경제의 발전, 관광문화 산업의 진흥 등 지역자체적인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지역문화에 대한 전문지식인 양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중앙집중문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동문화지킴이 활동과 앞으로의 발전적인 모습은 더 많은 기대를 하게 합니다.

한가지, 발제자의 내용 중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자원봉사자 양성에 있어서 ‘교통비와 식비 지급’ 등이 걸림돌이 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천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제가 본 외국의 자원봉사자의 경우, 만약 외국인 안내를 맡은 사람이 자신의 자동차를 사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주유비나 교통비를 지급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순수한 자원봉사의 개념, 무보수 무대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다 자발성에 중점을 더 두고 필요경비에 대한 공동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떨는지... 또한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노인인력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아실현과 함께 필요경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소일거리를 찾을 수 있다면 이는 지역사회가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적절한 금액과 예산 창출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소액으로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력한 힘이지만 본인 역시 자원봉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안동문화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특히 지방분권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높이 대두되는 현재 지역사회 자원봉사 특히 문화적 측면의 자원봉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안동의 전통적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선비정신을 자원봉사와 연계시켜 승화 발전시킨다면 다른 지역은 물론, 서울도 본받아 나름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 회원가입 안내

「한국자원봉사포럼」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아래의 혜택을 드립니다.

- 정기포럼, 세미나 자료집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포럼의 연구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매 회 포럼행사에 초청장을 받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 411401-01-115717 / 국민은행 예금주 : 금창태 [한국자원봉사포럼]  
 가입비 : 30,000



(100-120)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3번지 풍전빌딩 201호  
 TEL : 02)756-1046 FAX : 02)778-1047  
 http:www.volunteerforum.org E-mail: kovof@hanmail.net

..... 절 ..... 취 ..... 선 .....

## 포럼 (회원) 입회 신청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영문				
소속				직위	
연락처	직장	주소	우편번호 : -		
		전화		팩스	
처	자택	주소	우편번호 : -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본인은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3. . . . . 신청인 (서명)					

제36회 정기포럼 자료집  
**지역문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발행일 \_ 2003년 7월

발행처 \_ 한국자원봉사포럼, 안동시자원봉사센터

전 화 \_ 02)756-1046, 054)841-9897

팩 스 \_ 02)778-1047, 054)841-9898